

## 【양식 2】

# 자기 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61년전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며 소멸되어가던 전통예술을 되찾고자 ○○의 전신인 국악예술학교로 설립된 것은 단순히 잊혀져 가던 전통예술을 보존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고 유구한 역사 가운데 찬란하게 꽃 피운 전통예술 문화를 보존하고 그 토대를 재건하는 것이 세계를 무대로 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의 교훈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지금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우리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꽃 피워 지켜왔고 세계무대에서 그 경쟁력과 가능성을 줄곧 확인해오며 갈고 닦은 끝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가 개교 이래 주장해온 ‘창의적 인재 양성’은 지난 60년간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하며 전통예술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될 수 있었던 가치였을 뿐 아니라 여전히 전통예술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민족예술의 맥을 이어온 ○○가 학창 시절의 추억이 담긴 저의 ○○이자 교사로서 25년간 헌신해온 평생의 ○○이라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 성악과로 1982년에 입학하여 ○○○, ○○○, ○○○ 선생님께 판소리, 정가, 민요를 사사 받았습니다. 우리 소리만큼이나 전통무용의 매력에 흠뻑 빠져 대학을 무용과로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 1989년, ○○무용단에 입단하여 주역 무용수로 활동하며 1992년 ○○○○○ 올림픽을 포함하여 많은 국내외 공연을 소화했습니다. ○○무용단 시절은 ○○○ 사물놀이패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예술인들과 함께 세계의 무대들을 누비며 전문을 넓히는 값진 시간이었고 세계를 무대로 한 전통예술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온 몸으로 체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모든 대한민국 대표 예술인들과 꾸며냈던 종합예술무대는 제 전공인 무용뿐만이 아닌 전통예술 전반에서의 최고급의 무대와 예술수준이었음을 자부하며 스스로를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마음 한편에 전통예술의 세계화에 대한 꿈을 꾸게 하였고, 이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역무용수로 활약하던 ○

○무용단에서 퇴사하여 ○○의 무용교사와 무용단의 대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 첫 발을 내딘 1993년 당시, ○○ 무용과의 대학 진학률이 60%를 밑도는 정도였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두 개의 분반으로 나뉘어 50여명씩 하는 수업으로는 수업의 질이 나아질 수 없어 세 개의 분반으로 나누어 수업하였습니다. 밤낮으로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기초체력 및 기본기를 다듬고, 수업에 열정을 쏟은 결과 첫 해에 78%의 대학 진학률을 보였고 이 후 점차 오르며 87%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98년도 정식 교사로 임용된 초기까지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어지는 전통예술 교육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무용단의 경험과 노하우, 세계를 누비며 알게 된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용단’의 대표와 지도위원으로 10년간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공연예술계의 주축 예술가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용가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리는 모스크바의 ○○○ 극장에서 대한민국 무용수 최초로 주연무용수로 무대를 밟는 경험도 하였고, 한·○ 수교 1주년 기념공연, 한·○○○ 수교 1주년 기념공연 출연을 비롯하여 ○○○○○ 자정행사 무용연출(2000년, 광화문광장), 전국○○대회 개막공연 무용연출(2001년), ○○월드컵 개막공연 무용연출(2002년)로 참여하며 ○○ 무용과 학생들과 함께 출연하여 영광의 순간들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 설립 초기 미국, 일본, 프랑스 및 올림픽 무대를 누볐던 선생님들과 달리 재직 초기 해외 교류가 많지 않던 당시 ○○ 학생들의 해외 교류를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프랑스 ○○○ 페스티벌(1997년), 네덜란드 ○○ 세계민속축제(1999년), 미국 ○○○ 페스티벌(2000년), 이탈리아 ○○○○ 페스티벌(2003년)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 페스티벌들에 예술 감독으로 참여하여 기획, 실무추진 및 인솔까지 도맡아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 눈을 뜨고 꿈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일본 전국 ○○ ○○문화제(1994년), 대만 초청공연(2000년), 태국 관광청 초청 공연(2001년) 등의 해외 교류도 도맡아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7년간 ○○를 잠시 떠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재직했던 경험도 예술교육뿐만이 아닌 교육 전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며 새로운 시각, 균형적 시각을 갖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반학교의 예술중점학교를 운영하며 전공생이 아닌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통예술뿐만이 아닌 서양음악, 대중음악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예술교과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부장으로서 예술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일반학교의 교무행정, 자유학년제, 자율학교 등의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다시 ○○로 돌아와 예술행사부장으로 학생들의 공연 및 학교 행사를 총괄하며 미국 ○○○ ○○○ 센터에서 ○○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21년 3월, 국제문화교류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 ○○○ 정부와 ○○차세대협의회(○○○○)로부터 개인표창과 문화 봉사 금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무용단의 주역무용수, 대학과 ○○에서의 강의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경험은 저의 고등학교 교육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는 창립초기 국악창작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절 학생국악관현악단을 최초로 창단하여 국악관현악단의 모태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문화사절단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문화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8,90년대 ○○졸업생인 ○○○, ○○○로 대표되는 사물놀이와 창작관현악의 시발점에도 ○○가 그 중심에 있었고 국내외 수많은 공연 및 문화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K-Culture가 주목되고 있는 이 시기는 ○○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예술전문학교로 발돋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는 이에 부응할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점은 국제적 수준의 예술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정례적인 문화교류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카운티 예술중·고(L.A.), ○○ ○○ 예술고등학교(뉴욕), ○○○ ○○○ 아츠 아카데미(L.A.근교) 등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최고의 명문예술 고등학교에 매년 방문하고 또 초청하여 함께 공연하며 전통예술을 소개하는 일과 함께 세계로 눈이 향하는 학생들을 키워내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러시아, 남미 등의 한인지역사회와 정례적인 문화교류를 정착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문화교류에 기회를 주고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꿈꾸는 미래 인재들로 키워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 입학전형에 재외국민전형, 외국인 전형 등을 도입하여 전통예술을 배울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국내를 넘어서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자 본인은 ○○무용단 재직 시절의 최고 수준의 예술작품으로 국제교류의 중심에 있었고 ○○학생들을 이끌고 지난 25년간 국제교류 현장의 일선에 있었던 경험을 가졌고 ○○ 및 대학교, 일반학교에서의 예술교육과 학교운영의 모든 경험을 기반으로, ○○를 국제적인 예술전문학교로 발돋움하는데 초석을 다질 전문가이며 책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가 세계를 꿈꾸는 학교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학교로의 발돋움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비와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창의적 예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통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고, 융합교과의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6년간의 교육과정이 연속성을 갖는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개편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악·가·무의 종합예술’을 경험하며 개개인의 예술적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 기초교육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고등학교에서는 ○○ 정체성인 전통 민간 예술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각각의 학생들을 준비된 예술가로 키울 수 있도록 심화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3학년에 한해서는 1:1맞춤 수업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전공 외에도 다양한 예술을 직접 배워보는 특강을 도입하고 철학, 미학, 역사, 사회, 문학 등의 인문학과 융합수업과 인공지능, 디지털미디어, 빅 데이터, ICT 기술, 공학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수업도 ○○ 특성을 고려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수준의 수업을 개발하여 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고 키워주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기반 시설구축, 융합교육, 그 외에도 국제적인 예술학교들의 교육방향, 교육과정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과감히 수용하고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의 전통예술연구센터와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통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와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서둘러 고교학점제 로드맵을 구축해 제도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고교 학점제 도입의 장점인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되 교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교육과정을 재정비해야하며, 실제적인 운영의 난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만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을 대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즉시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TF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뿐만이 아닌 일반고에서의 업무 경험은 이에 대비한 교육방향이나 시스템 구축, 예술교과와 인문교과의 융합 등에 전문적이고 균형적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도제식의 예술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그런 교육이 너무나도 당연히 되던 시기부터 저는 권위적인 교사가 되려고 하기 보다는 늘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학생들과 맞춘 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고이 담아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자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 후임교장은 이제 60년을 돌아 새로운 60년을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의 국제적인 예술전문학교로의 발돋움을 기원하며 출사표를 던지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